

# 영암 콜버스, 주민 시간 아끼고 경제성도 'UP'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시행 한 달... 주민 '큰 호응'  
 탑승객 81%↑ 대기시간 71%↓ 수송능력 90명대

영암군의 부르면 달려가는 '영암 콜버스'가 시행 한 달, 주민의 큰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이 지난 3월과 9일 각각 실무자 회의, 중간평가 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콜버스 운행 한 달의 성과와 개선점,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5일 지역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삼호읍에 영암군이 첫 도입한 콜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달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택시의 편리함과 버스의 경제성을 합쳐놓은 혁신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영암군은 두 차례 회의에서 콜버스 호출 휴대폰 앱 '서클' 운영자 지원대 자동차와 버스 운행사인 남주행복버스·영암행복버스와 함께 지난 1개월

동안 콜버스의 성적표를 공유했다. 기존 노선버스와 비교해 한 달 동안 영암콜버스는, 대기시간 최고 71% 감소, 1인당 탑승 시간 69% 감소, 총 이용객 81% 증가, 수송능력 90명대 돌파 등의 성적을 거뒀다.

먼저, 버스 대기시간이 최대 90분에서 최소 26분으로, 1인당 총 탑승 시간이 52분에서 16분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영암콜버스가 이용객의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모두를 아껴준 것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나아가 콜버스 이용객은 6,315명으로 노선버스 2023년 기준 월 평균 이용객 3,489명보다 크게 늘어 영암콜버스가 노선버스의 좋은 대체 교통수단임을 입증했다.

1일 수송능력이 최대 100명에 근접한 90명을 넘어서 경제성도 뛰



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교통의 경제성 지표인 수송능력은 차량당 이용객 숫자로 계산하고, 100명이 넘어가면 혼잡비용이 발생한다.

두 회의에서는 영암콜버스의 개선점으로 △이용객 증가 및 대기시간 증가 △운전자 시스템 이해 부족 및 어르신 이용 불편 △운전자 피로도 증가 등도 논의됐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먼저, 영암군은 3대의 콜버스에 1대를 추가해 출·퇴근 시간대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 이용 편의를 위해 승강장에 번호를 부여하고, 영암콜버스 이용법 안내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롭게 도입된 혁신 교통수단을 이용해 준 영암군민에게 감사드린다. 성과는 높이고 개선점은 대책을 잘 마련해서 영암콜버스 운행방식을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해 나가겠다. 광범한 군민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 순천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18일까지 31건 안건 심의

순천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동진 의원)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현아 의원)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최병배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31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경우 의원이 전라남도도의 권한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최적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한 국립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장경순 의원이 정원의 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순천역을 순천정원역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4.10 총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선되신 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낙선하신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순천의 위대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화순,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함 방법 세트' 지원

화순군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조성을 위하여 안심함 3종 방법 세트를 총 52가구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3종 세트는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방문자를 핸드폰으로 확인, 움직임 감지 및 자동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초인종' ▲외부에서 문창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경보음과 함께 지인과 연결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창문틀에 설치하여 창문이 일정량 이상 열리지 않게 보호해 주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여성 중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1인 점포 운영자로 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jys5686@korea.kr)이나 군청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영현 기자

## 강진군 장미농장, 스마트팜 기술로 무장한다

온실 환경제어기술로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노동력 절감

강진군의 장미농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갖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노동력 절감에 나섰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은 전남 장미 생산의 6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장미 생산 선두 지역이다. 땅심화해영농법인을 중심으로 34농가, 15.3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커 지역 경제 활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장미는 주로 연동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 저온 시기를 지나 봄철에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미의 시설환경제어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능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식물 생육의 최적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다.



장흥군은 9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부군수 이하 사업 추진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3건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타사업과 연계성, 부서별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총사업비 2,789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3월에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50억원)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공모사업(80억원) 등이 선정되면서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였다. 군은 앞으로 ▲K-원연소재 전주 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전남도, 중앙부처 등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방향을 파악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확보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SNS 서포터즈 모집

이달 말까지 신청

영광군은 e-모빌리티 관련 소식과 엑스포 개최 정보를 자신의 SNS를 통해 홍보하는 '2024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SNS 서포터즈'를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1명이며 영광 e-모빌리티 SNS 홍보에 관심이 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본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활동 실적에 따라 서포터즈에게 월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SNS 서포터즈를 통해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에 대한 널리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대한 정보와 열정으로 함께 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영광 e-모빌리티에 관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개인 SNS에 월 2건 이상 게시하고, 팔로워(구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영광 e-모빌리티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활동 실적에 따라 서포터즈에게 월마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SNS 서포터즈를 통해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에 대한 널리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엑스포에 대한 정보와 열정으로 함께 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성공 개최

1만7000여 명이 다녀가... 수선화는 4월 말까지 개화

신안군은 선도에서 지난달 22일부터 4월 7일까지 17일간 열린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나의 사랑 수선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신안군의 첫 꽃축제다.

섬 지역의 특성상 바다 날씨에 민감한 만큼 하늘의 운이 따라야 할 수 있는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주민 234명이 사는 작은 섬 인구의 72배에 달하는 1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수선화 단일 재배면적(13.4ha)으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수선화 섬 선도'는 수선화정원, 수선화재배단지, 수선화의 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관이 펼쳐진다.', '특별한 경험이다.' 등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신안군은 아직 지지 않은 수선화의 여운을 담고 있는 선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4월 30일까지 여객선을 증편연장 운행하며, 여행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작은 섬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감격스럽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선화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년 선도에 방문하시어 수선화 향과 함께 봄을 만끽하는 자유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김종복 기자

## 보성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

참여 농가·참여자 상시 모집...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

보성군은 지역의 기초산업이자 중요산업인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4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상황이나 인력 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다.

보성군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중 '전라남도 지역 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돼 사업비 4억 원(국비 3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3월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년에 4회 교육을 운영하고, 감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7년 전에 귀농한 선배인 박윤열 씨가 신규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및 관리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삼기면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인 옥수수와 관련해서

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식품기업 등 지역 농가와 농식품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이며, 관외 구직자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구직 신청을 하면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연계해 지원한다.

군로자와 농가가 연계되면, 관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약 35,000원, 농가는 중식비와 간식비 12,000원, 농산물 제조 가공 기업에 4대 보험 실비를 참여 인원 1인에 대해 1일 기준으로 각각 지급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지역 농가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해 지역의 일자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하고, 연간 구인 구직 연계 3,500건을 목표로 농·발작 및 과

## 목포,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위원회 성공 다짐

목포시가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의 운영 성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체전 운영위원회 성공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목포 기관·단체장 등 110여명이 참석해 식전 축하공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추진 경과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체전 운영위원회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위원장으로 주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구성되었으며,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잔치가 종료



될 때까지 협력체계 구축과 대회 준비를 위한 자원과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2024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선진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며, "각급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

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500여 명이 참가하고,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8,0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해 전남 지역 전역에서 기량을 펼치는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다.

/목포=김근호 기자

## 곡성, 귀농귀촌인 실용생활교육 실시

신규 귀농인 대상 트랙터·관리기 사용법 등 교육 제공

곡성군은 최근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 실생활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년에 4회 교육을 운영하고, 감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7년 전에 귀농한 선배인 박윤열 씨가 신규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및 관리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삼기면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인 옥수수와 관련해서

농장 조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교육 신청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내기 귀농인들이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귀농 정착 과정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홍경백 기자